朝鮮日報
發行所 朝鮮日報社 서울市太平路一街
月定購讀料 六十圓

社說

越南을 救하라

一

일즉 越南亡國史가 남의 것이 아니고 바루 우리의 것으로 제 설음을 제 더도 설어할 수도 없었든 우리 社會에 널리 읽힌 일이 있었거니와 그 帝國主義的侵略樣相은 彼我가 일반이었든 것이다 安南이 나폴레옹三世에게 敗戰하여 그 支配下에 드러간 것은 一八六二年의 사이공條約에서이고 마치 우리가 日本의 保護條約에 强制된 것과 같은 그들의 佛國과의 親交條約締結은 一八七年이었다 이 條約으로써 安南王朝는 佛國援助下에 當時 混亂한 安南을 平定하고 國王이 되기는 하였으나 이것이 또한 우리의 韓國과 똑같은 運命의 길을 밟어 드디여 安南은 滅亡하였고 그 한번 佛國의 支配下에 드러간 後에는 諸列强의 殖民地政策과 또 달리 저 佛國의 徹頭徹尾한 彈壓 아래에서 民衆은 呻吟하여 오늘에 일은 것이다。

二

佛蘭西로서는 그들의 最大의 實庫일뿐 아니라 이것을 대하는 날이면 爾餘의 殖民地即亞弗利加等諸地도 그 한 問題化할 것이어서 그 執着이 깊을 것이며 英美나 蘇聯이 또한 各各 自國의 立場에서 間接으로 佛國을 支持하는 態度를 表示하거나 또는 沈默을 직히고 있는 것을 이와 같은 態度는 果然 第二次大戰의 結果를 참으로 人類文化의 進展을 爲하여 效果的으로 收拾하는 것인가 될 것인가 亞細亞의 한구석에 아직도 그 帝國主義를 그대로 남겨두어서 과연 타당한 것인가 佛蘭西의 暴政에 지달린 安南人民은 드디여 蜂起한 것이다 그들에 對하여 佛蘭西는 軍兵을 增援하여 南越의 解放運動을 彈壓하고 있으니 이것은 矛盾이며 反歷史的行動인가。

三

우리는 第二次大戰은 人類에게서 그 野蠻的인 侵略主義를 排除하는 것이 最大의 目的이였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틀림이 없다면 佛蘭西는 마땅히 安南의 解放으로부터 그 再出發을 計劃해야할 것이오 聯合諸國에서는 亞細亞의 勢力分爭을 目標로 할 것이 아니라 먼저 人類文化의 進展을 爲하여 安南은 安南人에게 돌리도록 協力할 義務와 權利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世界平和를 爲하여 謀略이 아니고 沈默이 아니고 正當한 길을 밟어 安南解放을 爲하여 積極援助함이 있어야할 것이다 安南二千三百萬人民은 우리나 마찬가지로 外力에 利用됨이 없이 그 自主獨立을 爲하여서는 一致團結로써 勝利가 오는 날까지 싸워야할 것을 覺悟해야할 것이다。

相互理解와 讓步에서 國際問題前途를 樂觀

UN美代表「오스틴」氏放送

【紐育六日發 AP合同】 UN美代表「오ー스틴」氏는「過般UN總會에서 美蘇兩國은 相互理解와 協調를 發揮하였다」고 다음과 같은 要旨의 放送을 하였다

過般 UN總會에서 美蘇兩國은 相互理解와 相互讓步的態度로 보이였다 UN總會開催當時에는 많은 疑惑心이 存在하였었나 各代表들은 總會가 成功하지 않으면 않될 것을 自覺하였든 것이다 何如間 總會 그 自體가 强力한 世界正義의「소대」라는 것을 表示하였다는 事實은 國際問題前途에 樂觀的觀測을 주게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何國이 옳으냐」라는 問題로부터「무었이 옳은것이냐」라는 問題로 轉換進展하였다 그러고 우리의 提案도 이러한 主義下에 立脚하였었는 것이다 따라서 UN全「멤버」를 은 世界的正義의 輿論을 反映하는 提案은 無視하지 않을 것이다 過般八週間의 總會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所得이라는 것은「멤버」國相互間의 信賴와 UN이 成功的으로 運行될 수 있다는 信賴感을 各「멤버」가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合同】「인도네시아」共和國首相「수탄·스하리」다

中央軍兵力縮減

年內에 三百萬으로

【南京五日發 AP合同】 現在開催되고 있는 參政會에서 國防部次長은 今年度中國軍事豫算說明에 있어서「條件이 許諾하는 대로 中央軍의 現勢四百九十萬名은 一年內에 三百萬名으로 縮減되리라」고 말하였다

亞細亞人民에 自由를

印度國議派首領越南問題評

【뉴ー데리五日發로이타ー合同】 印度國民會議派首領「크리파라니」氏는 佛印에 對한 佛國政策을 非難하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亞細亞人民에게 自由가 授與되지 않는다면 世界大戰보다도 慘酷한 戰鬪가 發生될 것이다 또 亞細亞人民에게 授與된 合法的인 自由가 優勢한 武力에 抑壓當하는 境遇에는 早晩間 世界는 大戰의 修羅場으로 化할 것이다 우리는 佛國民에 對하야 가장 友好的인 感情을 갖고 있으며 佛國이「나치」蹂躪下에 있었을 때에도 佛國에 對한 同情은 不變하였다 何如間 武力威壓下에 비로소 他國民의 權利를 考慮하게 되는 國家는 … 進步的이나 … 的國家라고 看做할 수 없다

中、蘇에도 代表派遣

民族代表外交後援會서 決議

民族代表外交後援會에서는 新年劈頭인 三日午前十一時同會會議室에서 全體會議를 열고 方今美國에 李博士를 民族代表로 派遣하듯이 中國과 蘇聯에도 民族을 代表한 外交使節을 派遣하기로 決議하였다는바 不遠間人選도 하리라 한다

李博士電報 發表當分保留

既報한 바와 같이 方今 渡美中에 있는 李承晩博士에게서 二通의 長文電報가 敎岩莊에 到着되였는데 同電文의 發表는 軍政當局의 付託이 있어 當分間保留하라는 … 發表할 수 없다 하며 이 電文 內容에 對하야 巷間에서는 相當한 臆測을 하는 模樣이다

「파렌방」에 市街戰

【바타비아六日發로이타ー】

… 에」氏는「파렌방」에 市街戰이 勃發되었다고 다음과 같은 聲明을 發表하였다 한다 南京「스마트라」의 美和兩國石油精製中心地인「파렌방」에는 方今 市街戰이 勃發되고 있으며 同地方에 있어서의 軍事的 危機는 가장 深刻한 바가 있다

폐탄帥元重態

【巴里五日發AFP合同】 一部報道에 依하면 戰時中「비ー쉬ー」政權의 主席이었던「페탄」元帥는 現在「뉴」島에서 重態에 빠졌다 한다

註=「페탄」元帥는 第三次大戰後 對獨協力罪로 死刑宣告를 받었고 그後終身刑으로 減刑되었다

伊首相華府到着

【華盛頓六日發 AFP合同】 伊太利首相「데가스페리」氏는 華府에 到着하여 記者에게 다음과 같은 聲明을 發表하였다

余는 美政府招請에 對하여 伊太利에 對한 名譽로써 受諾하였다 美政府가 余를 招請한 것은 伊太利를 援助하겠다는 美國의 好意를 充分히 證明한 것이다 그러고「데가스페리」首相은 短期間當地에 滯在할 터인데「번즈」美國務長官其他美首腦部와 懇談할 豫定이라 한다

英政府對印提案

會議派條件附承諾

【뉴ー데리六日UP發朝通】 消息通이 傳하는 바에 依하면 全印會議派運用委員會는 六日開催되는 會議에서 十二月初의 倫敦會談에서 表明된 印度自治에 對한 英國의 態度를 條件附로 受諾하리라 한다 그리고 이 委員會는 英國이 主張한 바의 各事項을 多數決로 承認하기를 決定하였으나 各州는 州人民의 意思에 反對되는 憲法을 受諾할 수 없다는 것을 主張할 것이다 同委員會는 또한 憲法이 人民各層의 協力과 好意로써 作成될 것이라는 데 同意하였으나 憲法作成에 對한 外部의 干涉에 反對할 것을 決議하였다

民衆同盟部署

一日附로 決定發表

民衆同盟에서는 中央執行委員會를 開催하고 中央常務委員을 選出하고 其後各部署에 對해서 協議中이던바 去一日附로 中央常務委員과 各部署責任者를 發表하였다

(常務委員) 金若水 林義鐸 李順鐸 羅丞奎 張子一 金尙德 崔南周 黃郁 徐容吉 李庚洙 崔朧洙 金商圭 金智煥 朴文熹 李龍範 金光 金俊尙 成百孝 金昌洙 崔東植 金大石 林哲熏 鄭應善 金德善 李東宇 權泰根 孫文曉 韓學洙 朴世煥 徐尙虎 安浚熙 趙成九

(議事團) 徐世忠 金尙德 張子一 李順鐸 金若水 金順愛 朴文熹

韓與 (中央監察委員長)

(常務監察委員) 高在燮 李善燮 尹琦榮

立議의 新年初會議

分科會委員選擧에 進入

院法을 通過식히고 休會中에 있던 立法議院은 新年에 드러가 처음으로 六日午後二時十五分부터 第二回第一次會議가 軍政廳內第一會議室에서 열리였는데 이날 지난번 再選에 依하야 서울地區民選代表로 被選된 申翼熙氏도 初登院을 하였고 本會議는 이미 各委員會 委員選擧에까지 이르러 本格的인 軌道에 올랐다 金奎植議長 司會밑에 開會된 會議는 于先前번 第一回 第六次會議錄을 朗讀通過식힌 다음 報告에 드러가 金奎植議長으로부터 立議副事務長 … 議長室國文秘書趙□□ 英文秘書安偶生兩氏를 決定한 紹介人事가 있었다 이어서 立議와 軍政當局사이에 協調連絡을 促進시킨다는 連絡委員會組織에 關한「하ー지」中將으로부터 立議에 보내온 書翰을 朗讀한 後 美國羅府에서 열린 韓八大會代表로 韓始大氏가 立議를 激勵한「멧세ー지」를 披露하였다 緊急動議로 安在鴻議員으로부터 北朝鮮으로부터의 … 問題를 解決하기 爲하여「하ー지」中將에게 … 는 提議가 있었으나 이는 立議委員選擧後에 討議하기로 保留하였다 金墩、申基蒼外數議員의 紹介에 依하여 這般滿洲로부터 仁川에 上陸歸國한 戰災民들이 서울奬忠壇收容所에서 當하고 있는 慘憺한 待遇를 立議에 呼訴하는 嘆願書의 傳達이 있었으나 이 亦是 委員選擧後에 討議하기로 決定하고 院法印刷物에 正誤訂正에 드러갔는데 午後三時以後의 이날의 議事豫定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本會議는 當分間繼續될 豫定이나 各委員會委員選擧에 組織하기를 提案하는 同時에 다음과 같이 美國側에 委員名簿를 提示하였다 立議側에서는 이에 對하야 立議側에서 委員選擧에 …

▲各委員會委員選擧 ▲諮衡委員會에 關한 諮衡委員의 報告 ▲各委員會 委員選擧 ▲其他 如左히 말하였다

軍政側連絡委員會對處方法

立議와 軍政當局間의 連絡을 緊密케 하기 爲해 一月初旬에 立議의 第二回第一次會議에서「하ー지」中將은 六日 立議連絡委員會를 一月中旬에 … 各分科委員이 決定한 後에 하기로 되였다 그 對處方法과 委員名簿는 各分科委員이 決定한 後에 하기로 되였다

▲委員長 존·웰크링代將 ▲共同委員長 E·F 목쓰大佐 ▲經濟專門官 A·C 번쓰博士 ▲社會敎育專門官 존·K·키예大佐 ▲行政專門官 L·I 탄전大佐 ▲政治專門官 L·M·□ 中尉

人事消息

△尹澄宇氏(朝鮮民族革命黨宣傳部長) △韓志成氏(同組織部長) 人事次來社
△徐相天氏(現代日報社社長) △朴世永氏(同總務局長) △宋濟容氏(同業務局長) 創刊人事次來社

原子力管理委員會

美側代表一同辭意表明

【紐育五日發AP合同】 UN原子力管理委員會美代表「바ー룻크」氏以下同委員會美代表一同은 今般白亞館當局에 書翰을 傳達하야 辭意를 表明하였다는데 그 書翰內容은 如左하다

우리들의 任務는 完了하였으며 今後로는 UN安保代表「오ー스틴」氏가 우리들의 任務에 當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美國은 UN安保와 UN原子力管理委員會에 各各別個의 代表를 派遣하고 있는 少數國家의 하나이다

바美代表談話

條約締結前엔 原子彈製造無妨

【華盛頓五日發 INS合同】 今般 UN原子力管理委員會美代表「바ー룻크」氏는 辭任하는 同時에「美國은 原子彈을 繼續製造한 것」을 力說하야 如左히 말하였다

나는 적어도 原子力管理條約이 締結되기 前까지는 美國은 原子彈을 繼續製造하야도 無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의 任務는 完了되었음으로 以後부터는 U·N安保美代表「오ー스틴」氏가 나의 後任이 되기를 要望한다

한편「트르맨」大統領及「번즈」國務長官은「바ー룻크」氏의 原子力管理問題에 있어서의 業績을 讚揚하여 各各如左히 말하였다

▲「트르맨」大統領=「바ー룻크」氏가 UN原子力管理委員會로 하여금 美案을 受理케 한 功績에 對하여 나는 衷心으로 致謝하는바이다

▲「번즈」長官=「바ー룻크」氏는 賢明하고도 勇敢한 態度를 發揮하였다 同氏는 美國民의 感謝의 뜻을 받을만한 資格이 있다

八面鋒

무서운 것은 無自覺한 것 特히 自身의 非에 對하여 無批判한 것이다 ▲單純한 無智로 因한 境遇라 해도 疎忽히 할 수 없는 것이지만 能히 是非를 判斷할 수 있을 無識者가 아니면서도 自己反省과 批判에 無關心하다는 것은 種類에 따라서는 自身의 罪를 隱匿하려는 犯罪에 類하는 惡行에 比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의 民主建設과 自己批判에는 所謂「日帝殘滓」의 肅淸이 큰 課題일 은 勿論이다 自然스러운 自己에도 타가 自由로운 發達을 期約키 爲하여 우리 生活 周邊에서 日帝的인 것을 肅淸할 것은 얼마나 緊切한 것일까 두고 두고 생각할 일이다 ▲特히 우리에게 절히 좀 먹고 있는 生活文化의 前進을 爲하야 倭말의 一掃는 格別히 注意하고 努力하여야 할 바이니 무엇보다도 子女敎育을 爲하야 이에 깊은 覺醒을 要하는 것이다 ▲아직도 路上에서 所謂 創氏名을 불으는 것을 들으며 또 商業看板、物名等을 볼 수 있는 것은 不快한 程度를 지나쳐 憤怒의 感조차 禁할 수 없는 것이다▲歷史上에 偉大한 記錄을 남긴 民族은 많다 그러나 그 言語를 維持치 못한 民族은 大部分 그 文化와 더부러「歷史의 記錄」으로만 남었을 뿐임을 다시 생각해 볼 것이다▲오늘 解放第三年을 마지하는 날에「게이죠郵便局」이란 懸板이 그대로 남어 있다는 것은 怠慢으로서는 너머도 意識的인 感을 깁게 하는 것이 아니냐「寺內大將」이란 일홈만 들어도 몸에 솔음이 끼친다

보석은 보옥장으로
寶玉藏

栗電球

壽命長久
絕對完全
發賣元 서울市南大門路五街七五 [서울驛前]
南電産業公司
工場 釜山府佐川町六一五

地方代理店募集
高級蓄針
HOPE
品質優良 호ー프
總販賣元 서울市忠武路四街八四番地
漢城洋行 李培植

資本金壹千萬圓(全額拂込)
協同生命保險株式會社
社長 李亘鍾
本社 서울市中區南大門路二街
支社 各道金融組合聯合會支部
支部 全鮮各地金融組合

常備救急護身藥
香丹 Hyang dan
仁丹本舖
製造元 大森工業株式會社
代理店 大韓藥品商事株式會社 서울市貞洞一番地 電光四五八九番

女子小店員數名採用
小卒程度滿十五歲까지 希望者는 履歷書携帶要來談
서울驛前朝鮮旅行社南隣
銀河菓子店

右商品求함
大豆油、棉實油、牛脂、스테아링산、脂肪산、黃白色와세링、세로판紙、마니라紙、高級香料、구리세링、流動파라핀、亞鉛華、피마자油、酒精、化粧品用瓶따까리(明)、구양철、아류민판、木납、백납
入荷品
化粧品用高級香料各種、크림와꾸스、化粧品香、化粧비누
化粧料總販賣元
新韓貿易株式會社
서울市草洞三三番地(首都劇場前) 電話本局②二七四〇

學習帳
大中小學用
製造元 國信洋行
(黃金町六丁目派出所後面)
서울市中區乙支路六街一八番地
電話東局⑤二〇九八番
工場 서울市西大門區冷泉洞
電話光化門③三一二八番

男女部員募集
資格 二十五歲以上、中學卒業程度以上
待遇 面談後決定
右와 如히 部員若干名을 募集함(每日午後一時부터 同三時까지 面談함)
서울市中區乙支路四街二〇二
博愛院事業部

三八線北學生에게
本會援護받는 學生은 七日上午十時武橋洞事務所로 오시오
三八線北學生援護會

「게이죠」란무어냐? 國都를侮辱하는이懸板

왜적의독아서이강산우리겨레가 버서난지이미 (二)해를맞이하며 잃었든 우리의아름다운말과글을 하나하나찾고있는이때아직도거리에서그지긋지긋한왜의말 왜의글발을그대로발견하고있다는것은 끝없는 분노와증오를느끼게하고있는터인데 더욱이서울의도심지대요장안의백만시민이 무사로드나드는 충무로(忠武路)입구에있는 서울중앙우편국청문우에는아직도 왜정때그대로「게이죠—·포스트·오피—스」(Keijo Post office)라고 남겨두어우리들의눈에거슬릴뿐아니라 외국사람들에까지수상스럽고도못맛당한생각을가지게하고있다。 겸하여한문자로는 「京城郵便局」이라고써부쳐는데 이미우리수도 이명칭은 경성이아니고 「서울」로고친이상군정청의한관청으로서 옛날그대로둔것만도태만한일이겠지만 더구나 그글씨는 조선민족을압박한 리대의적인 소위 무단정치(武斷政治)로 일흠높은 육군대장 사내정의(寺內正毅)의것이다 그는백오인(百五人)자전이라고하야 무근한자실을만들어가지고 경향에서지자로 지목되는분들을수백명을 붙들어가다가진 악형을다하것을위지하야 그의탄압정책에조선민중은 무쌍한고난을 바덧든것이다 그런인물의 글씨로된 그현판을 아직도그대로부처두었다는것은 일개우편국장이나 체신부의태만여하보다도 서울시의수치요 민족적수치가아닐수있는것이다 그러나이것은 일테이지만각저의는 거리에도 여전히일만(日滿)상회니동경(東京)무어니하는따위이름이눈에보이고또사람일흠을부를때「오까무다상」이니「나까우라상」이니붉으는것이있는것은도대체어쩌된셈인가좀더왜색을버리기에노력하야 완전히내겼을찾기에 큰반성이 있어야할것이절실히 요청되고있는바이다(사진은중앙우편국현판)

곳지우겠읍니다 崔局長辯明

서울중앙우편국장최재호(崔在鎬)씨는 정문의일본이름현판에대하야 다음같이말하고있다 그이름은 일제시대에 색여부첫든것인데 돌에다색였기때문에 쉽게지울수도없고해서 그러저러두는동안무관심하였읍니다 앞으로 곳지우겠읍니다。

卅餘金鑛을開發 禁止法令이解除되는대로

한돈중에 二천원넘모어하는금은 왜 채내지를않느냐 궁금히생각는사람모 적지않은데 이제군정청 광무국의 의견을들어보면 금년안으로 우수한금광 三십개소를 개발할계획을갖고있다고하여 지금까지 금을캐지못한 이유도말한다 법령二호 九三호등으로 금광개발이 금지되고 또금값이 결정되지않았으므로 이제까지 개발을허하지않았다 이두가지 문제만해결되면 금년안으로 三십개소의 우수한 금광을 개발할계획을갖고있다

쌀一合二勺·밀一合 六日부터配給開始

식량행정처발표에 의하면 六일부터 서울시민에게 배급할분량은 쌀一홉二작 밀가루一홉三작이라한다

서울에搬入된"쌀" 五萬七千八百石

지난二일 현재 서울에 운반되어 들어온 쌀(수집한것)은 五만七천八백二십八석이라고농무부에서 六일 발표하였다

十七萬餘匹綿布 供出農家에配給

一九四六년八월부터동집二월까지 五개월동안 남조선서 생산한면포는 六백九십八만二천四십六마(碼)(약십七만四천五백五十一필)인데 이생산품은 미곡수집에대한보상물자로서 농가에 우선적으로 배급하고일반배급도 각도지사를통하여했다고한다

化學肥料五萬噸 農會에서各道에配給

조선농회에서는 미국서수입한 초산(硝酸)암모니아 五만五천톤중 四만九천六백六십八톤을 각도에 다음과같이배급하였다고 六일발표하였다

△京畿一○、三七七톤 △忠北三、三五六톤 △忠南五、二○二톤 △全北六、八五六톤 △全南八、六○八톤 △慶北八、八二四톤 △慶南六、七四四톤 △江原三、三三九톤 △濟州一、三六二톤 計四九、六六八톤

그리고 九천톤의 유산(硫酸)암모니아도 곧배급할 예정이라고한다

暴利犯嚴罰되고있는가 「朝皮」夫章煥氏保釋理由는?

날로 악화되여가는경제상태는 그원인의대부분이 악질모리배의책동에있다하여도 파언이안이며 따라서 이에대한 엄중한숙청을 요망하는일반의소리가 자못큰바있겠거와 지난二十八일 백만원에 달하는 피혁(皮革)의 모리사전으로 기소되여 수감중이던 조선피혁회사부사장부장환(夫章煥)은 그간물연 보석이되여 장안의거리를 활보하고있다고 모리배에대한사법당국태도에 일반의여론은 자못분분한데 담당취조결사윤수중(尹壽重)씨의말과 보석을허락한 이천상(李天祥)판사의 말을들으면 다음과같다。

尹壽重檢事談

보석하였다는것은 의외다 부장환의 보석문제에 대하여는 담당판사로부터 내의견을못(들었)기에 나는 절대반대하였다 폭리로취득한돈을 개인이 소비치안코 회사운영자금에 쓴다하여도 폭리는 틀림없는일이며따라서부장환의 폭리는확연한일이다

李天祥判事談

보석해도 도망할티없고 또증거를연멸할염려도없음으로 허락하였다 그리고 회사운영상없지안해서는 안된다고하여 그러한것이나 필요에의해서는언제던지보석을취

조할수있다

全評第二回總會

전평(全評)경성지방평의회에서는 五일오전十一시서울시천교당(侍天敎堂)에서二十六개노동조합대표참석하에 김득원(金得遠)씨사회로 제二회정기총회를 개최하고지난해의 투쟁보고가있은다음 전년도의대도로서 일체기회주의적요소를 배격하자는맹서를한다음 집행위원선거를 전대복(田大福)씨외四명의전형위원에게 일임하고 오후세시해산하였다

七日부터料亭開放 俸給者住宅計劃中

金質市長疑問과答

서울시장김형민씨는육일 출입기자단과 회견하고 당면한 여러시정문제에관한 기자단의질문에다음과같이 말하였다

△料亭開放은잘되어간다 이에관해서는 칠일 군정청으로부터 자세한 발표가있을터인데 일부로정개방이취소되더라도 전체적으로 칠일부터는 전재민의 예정수용인원이 점차로모다수용될것이다 이문제는전혀군정청에한 권한책임이 있음으로나도서는 이이상더 발표할수없다

△장작五千坪配給中 장작은그동안 약오천평을반입해서 배급중에있고일찬 천방면에서 약칠백평이 드러올것이다 세민용장작은 국력반입도중에있다

△全區議員未定 전시구역대의원은 아직상사로부터 지시가없어 차점자가 당선될른지는 이상이다

△俸給者住宅은 [illegible]中 봉급자에게 싸게대부할 간이주택은 앞서 덕수궁안에 지어놓은것따위인데 상사로부터 아직구체적 지시는없으나 약오천호가량 계획중에있다

露雀洪思容氏

월간순문예지백조(白潮)의동인으로한때우리문단에서 문명을날리던 시인로작홍사용(露雀洪思容)씨는숙환으로여러해고생하든중 드디어작五일오전二시四○분시내마포구공덕정(麻浦區孔德町)一二二의四○에서 四十七세를일기로영면하였다 발인은九일十一시자택이며장지는 홍제원 재장(弘濟院齋場)이라한다

研樂院發表音樂會

研樂院과京鄕新聞共同主催 安炳昭李愛內兩氏門下生의 第一回發表音樂會는 六、七兩日午後六時부터 市內培材中學講堂에서開催한다

曆

七日(火曜) 陰十六日 干支 丙戌
△日出 午前七時四九分
△日入 午後五時三○分
△月出 午後四時二一分
△月入 午前六時四○分

日氣豫報

北西風이불고맑겠으나 아침에흐렸다
氣溫—零度二分

不進하는海運再建 「國際港」釜山의苦憫相

建設의봄 ③

국토의 三면을 바다로둘러쌓인 우리나라는 어면 섬나라를 해오코는 다른 어느나라보다 해안선(海岸線)의연장을 많이갖이고있음에도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해사의발전이 뒤떠러지고있음은 실로 모순된기현상이라할것이다 그러나 조선의근세사를읽은사람은 누구나다쉽게 그원인을알수있을것이니 근대문명에눈을쓰려하지않고 국제문화의교류마저배격거절하려든우리조상들이 봉건적이었든것도 모든이유의압력이였다 (…) 과중하야끝끝내 나라의주권과함께 우리강토를 차지할수있는모든권리를 잃고말았는것이다

◇

영제국의부강과 패전일본의국력은 전혀해사의발전에서였다는사실을 알게 자주건국을앞둔우리나라의 해사재건이야말로 육상교통망의정비와 (…)

인것이다 여기서우리는 해방제三년을마자한조선해사의현황을알어보기위하여 저난날일제침략의첫기지(基地)였고 해방된오늘에있어서는앞으로 곳실시될 내외무역으로당당하게 국제무역대에 등장하여 조선의 상부하게 될 관문 명실의역할을하게된 부산항(釜山港)은 지금어떠한 시설과 준비를가지고있는가 해사조선재건의일례로써 그면모를살펴보기도한다

◇

천연항이요부동항(不凍港)인부산항은 광무(光武)十년에 일인들의손으로 부두건설이시작되어이래 四十년동안 그들의침략기지로 발전해왔던것이니 그당시에 이미 제일부두제이부두가 건설되었고一九三六년에 방파제(防波堤)를완성하였고 다시중국에대한침략전을 개시하면서 제삼、제사부두의증축에 착수하여 一九四五년 해방직전에 겨우 착공하였든것이다 항내면적은 七백七十六「헤타」 수심(水深)十一메—타」나되는 이항구의 선박수용능력은 최고二만톤급의 선박을위지하여 각부두에는 八천톤급이 十三척 四천톤급이 五척 三천톤급이 一척 七천톤급이 一척 二만톤급이 二척과 합계척수로 二十二척 수로 十七만四천톤을 일시에 수용할수있으며 일년간에 五백만톤의 하물을 취급할수있고 또 기중기(起重機)十여대 七동(棟)의창고를갖고있어 항만시설로서는 별로손색이 없는 평

◇

그러나 국제무대에등장하려면 아직 완전무결한시설은 아니므로 당지항만 건설과 제五、제六부두의 건설로써 일변하물취급능력을 八백만톤으로 확대시킬 계획을 세웠으나 기타여러가지사정으로 중지하고 지금제四부두의 수축을 진행중에있다 그러나지금조선의해운상대는이 시설의능력도 마저충분히활용하지못하고있는 비참한형편이며 (…)

더러진南北 새해엔合치자

金泉

土木請負 共榮社 金泉邑本町三二 主 朴來仁

新韓公社金泉出張所 所長 洪鍾梵

金泉堂時計店 金泉邑本町一七八 金在永

丸宣工作所 金泉邑南山町 宣鎬翼

統一社看板店 金泉邑本町三四 禹政成

大新合同精米所 金泉郡牙浦面大新洞 金李守昌 舜學

金泉郡農會農業倉庫 金申元鉉 裵淳久榮

各種運動具 啓明社 金泉邑錦町 金濟夏

和信莫大小工場 金泉邑錦町 宋萬洙

甲種料理 新世界 金泉邑錦町 李鎭基

仁宣醫院 金泉邑錦町 姜錫俊

姜聲九 金泉邑旭町

金剛鐵物商 金泉邑城內町一八八 金萬大

三光印刷所 金泉邑錦町 權泰英

黃金紙物舖 金泉邑黃金町一五 崔武用

大邱國道事務所 中央聯土木部 金泉邑本町二○三의一 金泉工具 安基澤

高等料理 食道園 金泉邑本町 張德遠

新鮮堂書店 金泉邑南山町十二

慶北洋靴店 慶北金泉驛前 崔萬守

婦人각되及누비製造 平和堂 金泉邑本町

金光洋靴店 金泉邑城內町一九○ 尙吉

南山兄弟精米所 金泉邑南山町三 文性灝

朝鮮農會金泉肥料配合所 金泉邑城內町 所長 宋在珪

相信洋靴店 金泉邑錦町一四八 李相鳳

金陵印刷所 金泉邑本町一七四 李英九

興農號農機製作所 金泉邑錦町 李鍾萬

崔炎德大人慶州崔公益進氏以宿患今月四日陰十二月十三日午前一時三十分別世玆以訃告
永訣式 一月八日午前十一時於京畿道廣州郡都尺面老谷里自宅
葬地 京畿道廣州郡都尺面老谷里先塋
丁亥一月四日
嗣子 正德 孝子 英德 聖德 敬德 亨德 弟 益壽
連絡所 서울市中區太平路一街七○